

김선영의 시선집中

중국/신항국

2025. 04. 24

5월 중국 투자 아이디어: 노동절 황금주 수혜주 찾기

- 3개월 동안은 선전했고, 4월 한 달도 최대한으로 방어해 온 중국. 이제 본격적 소비시즌
- 5월은 관세 이슈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투자자)이 관세(트럼프의 발언)를 대하는 태도와 그에 따른 강도(등락폭)가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

5월은 본격적 소비시즌 시작: 한 달 동안 트럼프의 관세 이슈에 휩쓸렸던 글로벌 증시,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중국증시다. 덩시크가 올렸던 홍콩시장은 관세이슈가 하나의 빌미가 되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상황이다. 그런 중국에도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된다. 중국은 작년 11월 정책 개정을 통해 올해 연휴를 이틀 늘렸고, 5/2일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제 5/1-5/5까지 장기 연휴가 시작된다. 주식시장은 6일부터 정상 거래된다. 참고로 5/31-6/2은 단오절이고, 618쇼핑축제도 있어 본격적인 소비시즌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항공권 예약 플랫폼인 ‘항려종횡(航旅纵横)’에 따르면, 4월 중순 기준 노동절 연휴 중국 국내선 항공권 예매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183만석이 예약되었고, 국제선 항공권 예약은 75만 장을 돌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3개월 동안은 선전했고, 4월 한 달도 최대한으로 방어해 온 중국: 이미 4월 중순 확인한 중국의 1분기 성적은 합격이다. 경제성장률은 +5.4%(YoY), 3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7.7%(YoY), 3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5.9%(YoY), 3개월 고정자산 투자 누적 증가율은 +4.2%(YoY)을 기록했다. 수출도 예상보다 서프라이즈(+12.4% YoY)다. 일부 밀어내기 물량이 있었다고 하지만, 일부는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인도, 아세안, 아프리카 수출 급증)했다고도 보인다. 때문에 예상했던 통화정책은 잠시 아껴둔 모습이다. 지난 21일 발표된 중국 LPR은 6개월 연속 동결되었다.

5월 중국전략: 5월 들어서 관세이슈는 그 영향력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관세 이슈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투자자)이 관세(트럼프의 발언)를 대하는 태도와 그에 따른 강도(등락폭)가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성이 생기고 있다. 이에 관세에 대해서는(145%관세까지 언급된 마당에) 어떠한 발언도 5월 단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에 타격감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수준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하겠지만, 테크주에만 관심이 쏠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이슈가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덩시크 하나만으로 재평가 받기에 상승재료가 부재하다. 결국 연휴 및 소비주(면세점, 쇼핑, 엔터, 공연, 여행)와 일부 경기부양에 따른 은행주로 관심이 분산될 수 있겠다. 물론 정책, 수급, 실적이 동반되는 산업은 테크주이다. 일간 거래대금에서 강구통 비중이 46%이상 차지(관심도가 몰려있어)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주의 반등시 테크주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 단, 기술적 반등이던, 정책의 반등이던 간에 이번 5월의 상승재료는 (추가적인 시부양책이 있지 않는 한)소비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도표 1. 5.1 노동절 연휴 기대 관련 산업과 관련 기업

산업	내용	기업
관광 여행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도시에서 노동절 관광 소비권(1인당 500위안 한도)을 제공했고, 고속철도 주요 노선은 30% 할인, 항공편 역시 추가 증편의 계획을 발표	-중국중면(601888): 산아(三亚) 국제면세도시, 하이커우(海口) 국제면세도시 등 채널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본래 일본, 한국, 유럽으로 흐르던 고급 소비 수요를 성공적으로 흡수함 -화주그룹(HHTT): 5.19 중국관광의 날 행사를 맞아 자사 30여개의 브랜드, 1.1만개 이상의 호텔이 행사에 참여하여 1억 위안에 달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 -트리프닷컴(TCOM): 5.19 중국관광의 날 행사를 맞아 전례 없는 할인 혜택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 총 2.5억 위안 이상의 할인 혜택과 소비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며, 항공권, 호텔, 입장권, 단체 여행 등 전 제품군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전달할 예정 -중국국항(601111): 2024년 총 매출은 1,666.9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4% -다친철도(601006): 국철그룹 산하의 석탄 운송을 주로 하는 철도 운송 회사로 2465킬로미터의 철도 노선과 핵심 노선인 대친선(大秦线)을 보유함. 대친선은 중국 서부의 석탄을 동부로 운송하는 핵심 통로로, 주로 산시성의 석탄 외부 수송을 담당하며, 2024년 석탄 발송량은 3.92억 톤으로, 전국 철도 석탄 운송량의 14%를 차지함
소비재 가전	-에너지 효율 1등급 에어컨/냉장고 구매 시 노동절에만 최대 1,000위안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함	-거리전자(000651): 4/22 임시 주총에서 동명주가 13대 이사장으로 재선임, 장위 신임사장으로 승진.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5명 유죄판결. 4/28일 실적발표. 올해 이구환신 대상범위 12종으로 확대. 1급 에너지 효율 제품 구매시 보조금 최대 2천위안 지원. 2024년 이구환신에 따른 에너지 매출은 전년 대비 75.7%증가 -메이디(000333): 2025년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8%, 영업이익은 13%증가 예상. 에어컨 판매 호조가 주요 성장동력임. 2025년 2월 기준 오프라인에서 에어컨, 식기세척기, 정수기 판매액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함. 올해 2분기 역시 에어컨 수요증대 예상
지역 특산품	-타오바오, 핀뉘뎬 등 e-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해 농산물 직거래를 장려하기로 함	-알리바바(BABA): 자사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와 티몰은 최소 1만개 수출업체가 10만개 제품을 판매하도록 플랫폼 내 노출 확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알리바바의 슈퍼마켓 체인 '휘센마'도 수출업체 제품을 매장에 진열할 수 있도록 '그린 채널' 제도를 신설함 -핀뉘뎬(PDD): 5월 2일부터 미국행 소포에 대한 소액 소포 면세 종료에 대응하기 위해 1천억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
문화 엔터테인먼트	-노동절 연휴에 일부 영화 티켓 가격은 50% 할인, 일부 공연 티켓은 20% 입장료 할인이 적용	-화저영화(300133): 2025년 1분기 총매출은 5.8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31.96% 증가함 -동방명주(600637): 2025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증가한 15억 위안, 영업이익률은 12%대로 안정적인 성장세 보일 것.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에서의 수익 확대가 주요 성장 요인으로 분석됨. 특히 2분기부터는 AI기반 맞춤형 영상 추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사용자 참여율 제고와 광고 수익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 확장을 검토중이며, 한국과 일본 시장과의 협업 가능성도 논의중. 2024년 연간 배당금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수준
디지털 콘텐츠	-유쿠·아이치이는 노동절 맞이 30일 무료 체험권 배포 및 프리미엄 구독 할인을 시작	-알리픽처스(01060.HK): 유우쿠의 6천만 회원과 알리픽처스의 IP 운영을 결합하여 순환 구조를 형성했으며, 《유랑지구 3(流浪地球3)》은 파생 상품의 GMV를 8억 위안 이상으로 끌어올림. 콘텐츠 비용은 15% 감소했으며, 그로 인해 손실은 100억 위안으로 축소됨 -텐센트뮤직(01698.HK): SM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갱신하는 등 자체 음악 콘텐츠를 확장하고 파트너십 범위를 넓힘. 또한, AI 투자를 확대하여 최적화된 알고리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
교통 물류지원	-중국 정부는 5월 한 달 간 소상공인 택비 30% 감면을 약속했고, 노동절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2,000기를 추가 설치하도록 함	-순풍홀딩스(002352): 3월, 총매출 236.6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63%. 그 중, 급행 물류 사업의 매출은 178.9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61%, 처리된 물량은 12.95억 건으로 +25.36%, 단위당 수익은 13.82위안을 기록 -CATL(300750): 글로벌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 최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비슷한 성능의 새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5분 충전에 52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들을 공개 -BYD(002594): 2025년 1월 한국 시장에 元PLUS(ATTO 3), 海豹(Seal), 海狮07EV 등 3종의 순전기차 모델을 선보이며, 4월 10일 열린 2025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향후 출시 예정인 7종의 신차를 추가 공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저가 트림 모델에 BYD 배터리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테슬라와의 협력 가능성도 주목 받고 있음. 1분기 순이익은 85억 위안~1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04%~118.88% 증가 전망

자료: DB증권

도표 2. 5.1 연휴 해외 여행 예매율 상위 10선

2025 노동절 해외여행 예매율 Top10



자료: 투니우(途牛) 공식 웹사이트, DB증권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